

교수1명이 학생33명 담당

『교수 한명이 33.1명의 학생을 맡고 있어 학생들의 교수와의 개인면담을 하기 힘들다.』

한 강의를 담당 평균 90명의 학생이 복제대지만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10.5㎡(3.2평)에 불과해 공부할 장의실이 되고 있다.

연구노동을 쓰기위해 도서관을 찾지만 학생 1인당 장서수가 겨우 18.4권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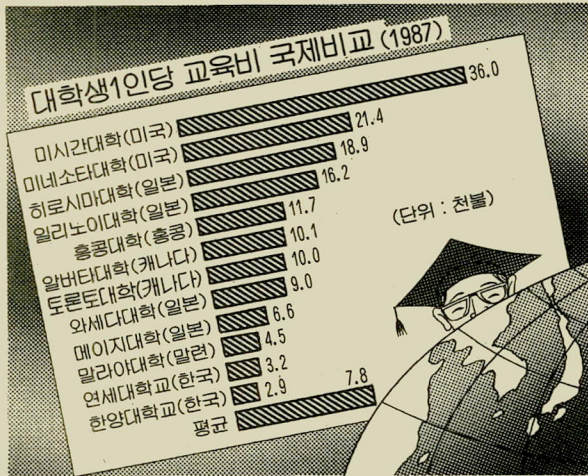
학술비가 치솟아 기숙사를 남보지만 1백명의 학생을 8.7명만이 행동을 얻고 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욕망도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가

한 강의실 평균 90명 복적

도서관장서 1인당 18권

재단전입금·기부금 2배확충 등 제시



선진국과 유망대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백45만원이어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金熙載)가 1991년도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들어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교협의 진단이다.

대교협은 10월 「대학발전 10년계획」의 성취를 위한 대학재정백서를 발표,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사진의 밑그림인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10개년계획을 착실히 수행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라는 것이 대교협의 분석이다.

대교협은 10개년계획 목표연도인 2001년에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0명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는 3백86만원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는 30권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 △교수의 실용화율은 30%